

제25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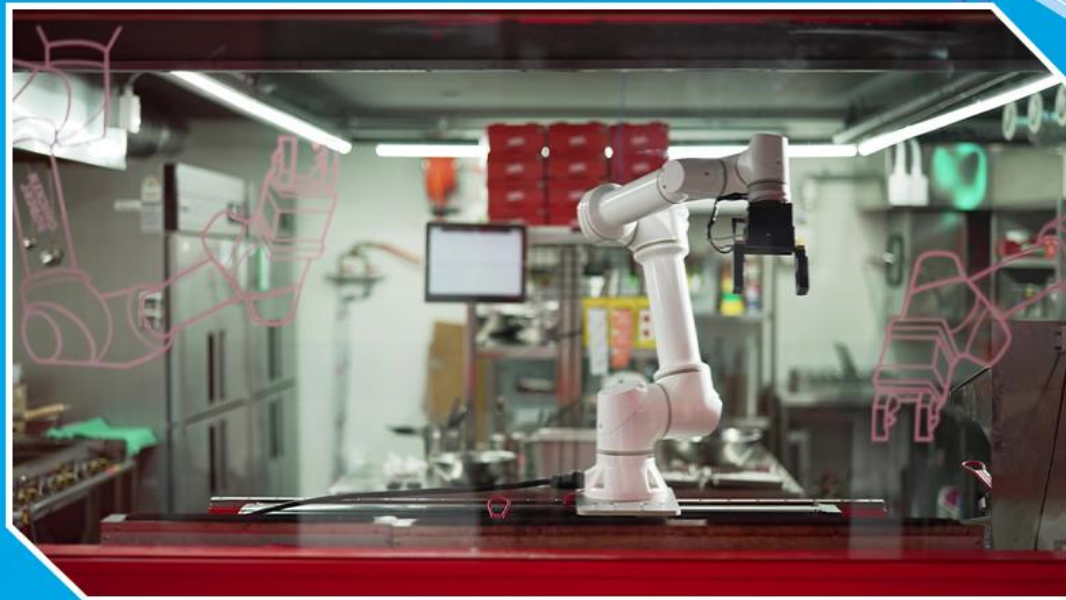
2021년 **대장** 수상기업
튀김로봇 솔루션을 표준화한
로봇조리 프랜차이즈



로보아르테 | 강지영 대표님



대표님과 기업을 소개해주세요.



조리로봇을 개발하고, '왓버트치킨'이라는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는
로보아르테라는 스타트업입니다. 저는 이 회사의 대표 강지영입니다.
글로벌로 저희 왓버트치킨 브랜드 확장 및 로봇 B2B 판매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출을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수출 철탑, 은탑, 금탑까지 받는 것을 꿈꾸는 병아리 수출기업입니다.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어떻게 알게 되었고, 대회에 참가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여성 대표이기 때문에 창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부터도, 너무 자연스럽게 “이 대회 넣어봐”라는 제안을 주변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지원은 하지않았었는데 창업을 2018년9월에 하고 2021년 초에 지원했으니, 창업하고 3년을 채우기 직전에 지원했었네요.

그 이유, 동기에 대해 생각해보면, 창업 당초에 생각했던 비즈니스 모델은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최소한의 MVP는 나와야한다’, MVP 나오고 나서는 ‘매출을 내봐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로 이어졌었는데요. 나름 탄탄해 졌을 때 지원하고 싶어했던 것 같지만, 더 솔직히 말하자면,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겁이 좀 사라졌을 때, 그제서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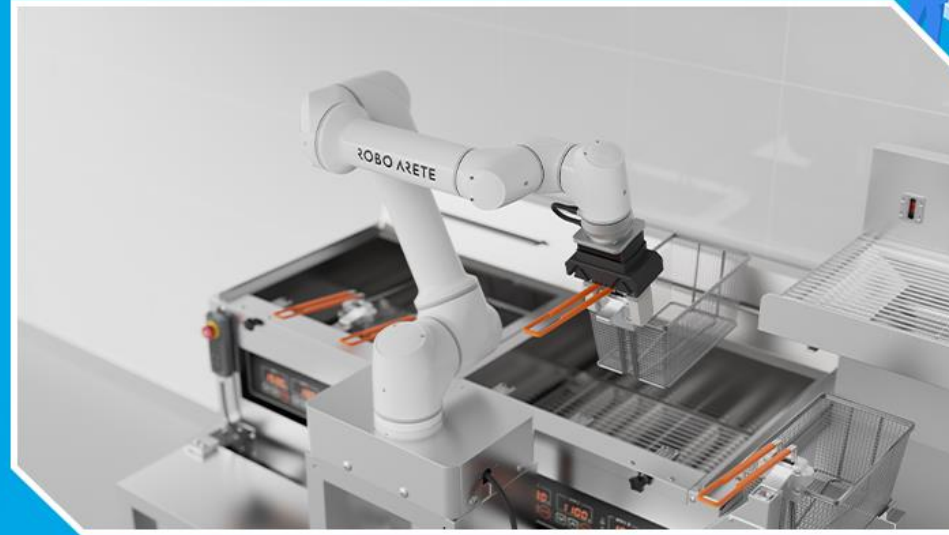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시고 나서 어떤 점이
가장 좋았나요?



2가지가 좋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로 제가 경험했던 힘들었던 점, 잘한 점,
아쉬운 점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 그리고 저보다 먼저 여성창업가의
길을 걸어가신 많은 여성기업 선배님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었어서, 그 점이
좋았습니다.

사람이 다가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다가오는 것이라 하죠,
그런 맥락에서 어느 기업의 대표가 다가오는 것은 그 기업의 히로애락을 모두
간접경험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회 수상 후에 대표님과 기업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대표가 해야하는 일이 많죠. 누군가 제게 대표의 일은 3R이라고 했습니다. IR, HR, 그리고 PR. 대상 수상 후에 저는 가장 강력한 PR 채널을 얻은 느낌입니다. 이 인터뷰를 주관하신 여성기업종합센터같은 경우 특히 감사하다고 꼭 이 인터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필요할 때에 밀어주시고 끌어주십시오.

2024년 여성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할 후배
여성창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앞서, 한 사람이 다가오는건 인생, 기업이 다가오는건 기업의 희노애락 그런 이야기 했었죠. 여성창업경진대회에 참여 한다는 것은 한국의 여성창업가들을 동료로 얻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가도 가치있는 일이지만, 수상했을 때 열매가 더욱 답니다.
최선을 다하셔서 꼭 좋은 성과 내시기를 응원합니다!